

- [그림1]에서처럼 2022년 5월까지 소비자동향지수가 100을 상회하였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빅스텝 시행 이후 우리나라 소비자동향지수(CSI)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됨

그림 1 | 우리나라 소비자동향지수(2022.3-2022.12)



* 출처: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결과

-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은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, 단기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2023년 1월 30일, 미국 월스트리트저널(WSJ)의 조사에 따르면,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지난 4개월 중 3개월간 하락세를 보였고,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12월 서비스 지출은 최근 1년간 최저치를 기록함
 -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세는 2022년 2.6%에서 2023년 1.7%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주요국 정부가 긴축적 통화·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(한국은행, 2022)

소비 행태의 변화와 이커머스의 진화

- 국내 경제 성장이 둔화하며 소비자 다수는 2023년 재정·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였고, 절약 생활, 소액 재테크, 본인 집중의 가치 소비, 디지털 기반 소비활동 등의 소비행태가 강화될 전망
 - 국내 소비자의 43%는 2023년 소비자 가계 재정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였으며, 2023년 금융 소비 트렌드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1%가 알뜰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상함 (하나금융경영연구소, 2023)
- 2023년 우리나라 소비 트렌드 중 하나는 자원과 정보를 최대한 동원하여 알뜰한 소비를 하는 “체리슈머”의 부상으로, 정보와 상품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됨
 - 체리슈머(Cherry-sumers)는 케이크에 올려진 체리만 쏙 빼먹든 혜택만 누리는 소비자라는 의미의 체리피커(cherry picker)와 컨슈머(consumer)를 합성한 단어로 남에게 크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원과 정보를 총동원하여 알뜰하게 소비하는 소비자를 의미(김난도 외, 2022)